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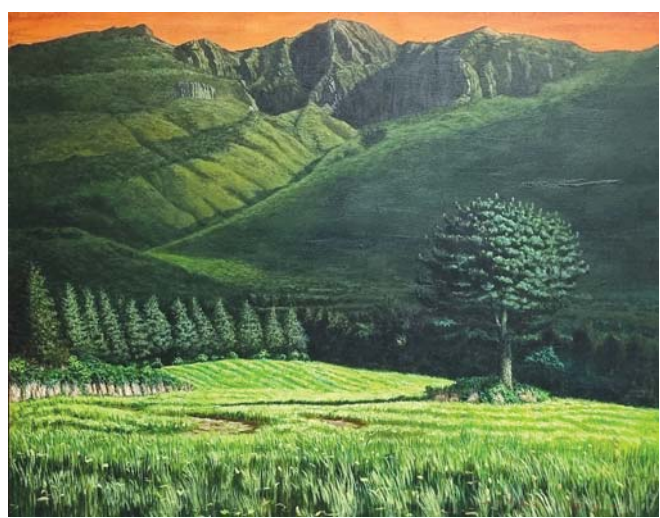
■ '제주청년 오승익' 작품 세계 한눈에

삶의 흔적 탐구해온 작가의 예술적 여정 조명

제주문예진흥원 기획초청전
청년작가전 30회 기념 기획
역대 우수 청년작가 중 선정
6일 개막 문예회관 3전시실

불확실성과 긴장감 속에서 형성되는 삶의 흔적을 탐구해온 오승익 작가의 예술적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올해 제주청년작가전 30회를 기념해 기획한 초청전으로, 역대 제주청년작가전 우수 청년작가 중 선정된 오승익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제주청년 오승익' 전이다. 전시 주제는 '한라산 흔적'을 내걸었다.

작가의 예술적 여정은 30대 초반 토르소와 마에불을 통해 불확실성과 긴장을 표현하던 시기부터, 40대 중반 이후 한라산을 모티브로 아픔과 희망의 흔적을 다루는 현재



오승익 작 '한라산 흔적_그날 기억(자유)' (왼쪽)·'한라산 흔적-서귀포 한라산03'



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가 불확실성, 긴장감, 아픔 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승화시키는지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작품 속 색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청년 시절부터 최근 몇 년 전까지 주로 브라운 계열의 단색으로 표현해온 작가는 "최근에는 브라운

색의 한라산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생의 흔적으로 그린 계통의 색상 중심으로 다양한 색상의 한라산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작가노트 중)이라고 했다. 전시는 제주 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오는 6일 개막(개막식 오후 2시)해 이달 18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엔 작가의 작품 20여 점이

내걸린다. 김태관 제주문화예술진흥원장은 "1994년 시작된 제주청년작가전이 많은 미술인과 도민들의 관심 속에 성장해왔다"며 "이번 전시는 20년 전 우수 청년작가로 선정된 작가의 예술적 성장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그리운 바다 성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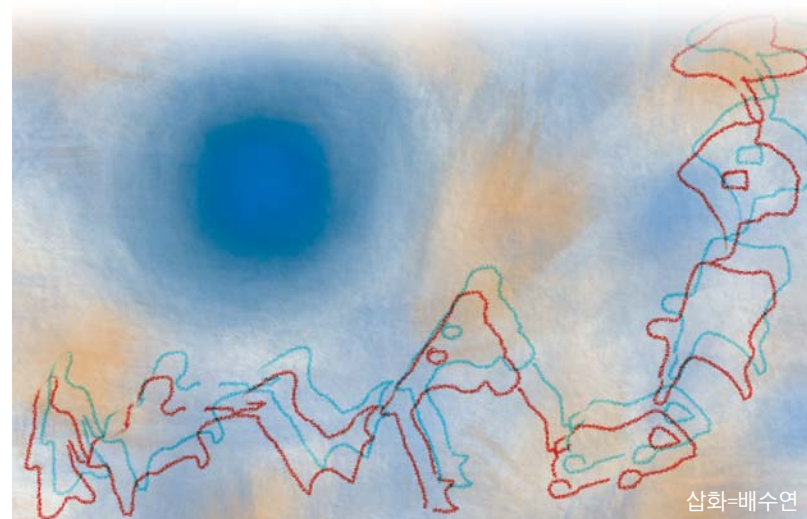
이생진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순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슬픔을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
온 종일 바다를 바라보면 그 자세만이 아랫목에 눕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죽한 존재 모두 바다를 보고있는 고립
성산포에서는 주인을 모르겠다 바다 이외의 주인을 모르겠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부분



삼화=배수연

제주엔 검은빛 들마다 구멍이 있고, 오름도 꽃자왈도 뚫린 구멍을 가득 품는다. 시인은 말한다. 그 구멍이 모두 크고 작은 바다에 다름 아니고 심지어 인간의 '허구' 자체도 바다이며 그게 모여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고. 삶 자체의 뾰과 가까움이, 높고 낮음이 일종의 알 수 없는 구멍이며 구멍마다 성산포가 고여 있다. 그 속에서 헤엄치는 못 존재들을 보라. 고립을 본능으로 가지고 바다 곁에서 익힌 눈썰미로 죽음을 바라보는 해녀의 물결하는 고립의 풍경 앞에 잠시 서보자.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묻은 보리밭도,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짚신 두 짝 놔" 둔 섬 꼭대기도 바다로 파여 있다.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이 섬에서 죽은 자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어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는 투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섬에 태어나서 한 사람도 섬 밖으로 못 나간다는 투로 빗대어 들리지만, 바다뿐인 성산포를 그리워하며 청람빛 바다 앞에서 늘어가는 유한한 인간은 성산포의 주인도 바다의 주인도 되지 못한 채, 이곳이 우리의 요람이며 무덤이고 바다가 우리의 너른 삶터이자 묘지라는 사실만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다 홀연히 성산포에서 깨어나곤 하리. <시인>

'쇠처럼 단단하고 난처럼 향기로운' 추사와 초의선사의 42년 깊은 우정

10일부터 제주추사관 기획전
전시 연계 토크콘서트·체험도

제주추사관이 올해 제주 유배시절 추사 김정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기획전시를 시작한다. '쇠처럼 단단하고 난처럼 향기로운'이란 주제를 내건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는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다.

오는 10일 개막하는 특별기획전은 42년간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추사와 초의선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 그동안 추사의 예술세계에만 집중적인 관심이 쏠려 그의 꾸밈없는 인간적 면모를 접할 기회가 드

물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 김정희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시와 연계한 토크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추사관 제3전시실에서 '추사 김정희 평전'의 저자인 최열 미술사학자와 함께하는 '추사-초의선사'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날 최열 미술사학자는 두 거장의 삶과 예술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낼 예정이다.

또 전시기간동안 '느리게 가는 편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작성한 편지는 연말과 전시 종료에 맞춰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기획전시·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은 전부 무료다. 오은지기자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에 읊트는 생명 제주민예총 '잃어버린 마을에서 보내는 선물' 진행

올해도 '잃어버린 마을' 동광리 무등이왓에 희망의 씨앗(좁씨)이 뿌려진다.

(사)제주민예총은 2024 예술로 제주 탐닉 '잃어버린 마을에서 보내는 선물'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 사진

오는 12일 오전 11시 동광리 무등이왓 조밭에서 팥살림 코사로 조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이후 검질매기, 작은 음악회, 추수, 오메기술·고소리술 만들기, 큰넙께 술들이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잃어버린 마을 동광리 무등이왓의 다섯 개 불방애터(연자방아) 중 하나였던 곳에서 조농사를 짓는다.

제주민예총은 '무등이왓' 땅에 희망의 씨앗(좁씨)을 뿌리고 생명



의 숨을 불어 넣어 '팥살림'을 실천하고, 수확한 조로 고소리술을 빚어 4·3당시 동광리 사람들이 토벌대에 쫓겨 큰넙께로 들어갔던 12월에 맞춰 술을 들인다. 그렇게 50여 일을 숙성시킨 다음 그 술을 4·3영령들께 제주(祭酒)로 올리고, 5·18 등 인권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잃어버린 마을에서 보내는 선물'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오은지기자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오순문

서귀포시장

서귀포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제주지역동문회
회장 김성룡 외 회원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서귀포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14회 동창회
회장 오민재 외 동창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서귀포시장



오순문
(군위오씨 26세)

서귀포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위오씨대동종친회 회장 태문
군위오씨대동청년회 회장 상필